

무로마치 시대 座敷 장식의 정치성 천황의 行倂을 통해 본 아시카가 쇼군 저택 장식의 의미

이정은

李延恩
피츠버그 대학
미술 및 건축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미술사

I. 머리말

무로마치(室町) 막부 쇼군(將軍)들의 가라모노(唐物) 소장품과 〈君台觀左右帳記〉로 대표되는 이들의 장식 및 배치 방법과 관련된 일종의 매뉴얼, 그리고 그 건축적 배경인 가이쇼(會所)에 대해서는 무로마치 시대 문화의 특징으로 역사, 건축사, 미술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¹ 특히 무로마치 시대 및 일본 중세사를 새롭게 접근 하려는 최근 십여 년간 일본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무로마치 막부 관련 사회 경제사, 대외 교류사 분야의 일련의 연구들은 아시카가 쇼군들에 대한 기존의 ‘문화적 이미지’

* 필자의 최근 논저: "Envisioning the World: Two Case Studies of Japanese World Map Screens in the Late 16th-Early 17th Centuries", 피츠버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9世紀 百扇圖屏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¹ 주로 〈君台觀左右帳記〉와 〈御物御画目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전하는 회화 및 공예품들과 목록과의 대조작업, 소장인 분석, 쇼군 저택의 추정 도면 복원 등 장르적 특성에 따라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야노 다마키는 〈君台觀左右帳記〉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사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矢野環, 『君台觀左右帳記の総合研究: 茶華香の原点江戸初期柳營御物の決定』(東京: 勉誠出版, 1999).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아시카가 쇼군 소장인에 대한 연구로는 佐藤豊三, 「〈室町殿行幸御飾記〉と雑華室印」, 『東山御物』(東京: 根津美術館, 1976); 山本泰一, 「足利義満時代のぜなみ善阿弥と鑑藏印について」, 『室町將軍家の至宝を探る』(名古屋: 徳川美術館, 2008), pp.171-189가 대표적이다. 가와카미 미즈구는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중세 유력 공가 및 무가 주택 전반의 발달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川上貢, 『日本中世住宅の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2).

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²

선행 연구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간 내 다양한 기물들의 배열 및 전시 자체를 하나의 세트로 통합적으로 접근해 그 구체적인 용례와 이것이 당시 일본 중세 교토의 복합적인 지배구조 속의 후원자와 관람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천황의 쇼군 저택으로의 '行倅'이라는 특별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무로마치 시대 쇼군 저택에서 이루어진 정교하고 화려한 座敷 장식이 지나는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 장식 전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1437년 고타나조노 천황(後花園天皇, 1419~1471, 재위 1428~1464)의 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 1394~1441, 재위 1429~1441)의 무로마치 저택(室町殿)³으로의 行倅을 중심으로 14~15세기 문헌과 시각 자료와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당시 쇼군 저택에서 어떻게 座敷 장식이 확립되어 가는지, 더 나아가 이들이 아시카가 쇼군의 지배 정당성 및 권력 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II. 문헌을 통해 살펴본 14, 15세기 가이쇼와 座敷 장식의 발달

아시카가 쇼군 저택에서 座敷 장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이쇼이다. 주로 상류층의 주거지에 다양한 회합 및 연회를 위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공간 및 건물을 지칭하며, 그 내부는 가라에(唐繪), 가라모노라 불리는 대륙에서 유입된 회화 혹은 도자, 금속, 칠기 등 다양한 기물들로 장식되었다. 가이쇼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은 문헌을 통해 13세기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이쇼는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무로마치 저택에서 처음 등장한다.⁴ 중세의 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² 아시카가 쇼군들을 둘러싼 문화적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2008년 도쿠가와 뮤지엄과 2014년 미쓰이 기념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두 전시가 주목된다. 『東山御物の美』(東京: 三井記念美術館, 2014); 『室町將軍家の至宝を探る』(名古屋: 徳川美術館, 2008).

³ 무로마치 도노(室町殿)는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공식 저택(御所)으로 1378년 처음 건립되었다. 요시미쓰 사후 해체 및 재건의 과정을 반복하며 요시모치, 요시노리, 요시마사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 무로마치 도노는 건물뿐 아니라 건물의 주인인 쇼군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헌상 저택을 가리키는 말로 室町殿 외에 室町亭, 室町第, 花の御所 등도 확인된다.

⁴ 무로마치 시대 쇼군 저택과 가이쇼에 대해서는 付書院, 押板, 違棚 등 書院造 건축 양식의 등장과 관련하여 건축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조. 宮上茂隆, 「會所から茶湯座敷へ」, 『茶道聚錦 7. 茶座敷の歴史』(東京: 小学館, 1984), pp.46-92; 川上貢, 「會所と座敷飾りの成立過程」, 『日本美術全集』11(東京: 講談社, 1990), pp.161-167; 齋藤英俊, 「會所の

1
〈仏日庵公物目録〉
1363년
30.1×443.0cm
가마쿠라 円覚寺



않은 상태에서 상류 주택 내부 집객의 공간과 그 장식 방법의 원류 및 발달 과정을 추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장에서는 당시 일기나 문집 등 문헌기록을 통해 가라모노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상류 주택 내부 집객 공간의 발달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1. 가라모노의 유행과 座敷 장식

가마쿠라(鎌倉) 시대(1185~1333) 후반부터 선종 사원을 통해 다량의 가라모노가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이 선종 사찰과 무가 및 공가 상류층 간 예물로서 진상되고 교환되었음은 최근의 대외교류사적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있다. 신안선 수중 고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인양된 유물의 목적지 중 하나로 교토의 대표적 선종 사찰인 도후쿠지(東福寺)가 알려지는 등 14세기 가라모노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4세기에 작성된 엔가쿠지(円覚寺) 부속 사찰 仏日庵의 집기물 목록인 〈仏日庵公物目録〉¹⁾을 통해 당시 선사에서 소장한 가라모노의 구체적 양상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아시카가 쇼군 및 유력 무가, 슈고 다이묘

成立とその建築的特色」, 『茶道聚錦 2. 茶の湯の成立』(東京: 小学館, 1984), pp.155-164.

에게 확산되었는지 그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⁵

〈仏日庵公物目録〉에는 승려들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묵화, 일본과 중국 승려들의 墨蹟, 법의, 금속 의례용구, 청자 화병이나 향로 등 다양한 기물이 기록되어 있다. 목록과 함께 주어진 내용을 통해 당시 선사에서 소장했던 가라모노가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1305~1358), 아시카가 요시아키라(義詮, 1330~1367) 등 쇼군과 유력 무가에게 진상품이나 증답품으로 보내지거나, 相論과 소송의 중요한 예물로서 사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자면, 1352년 4월 18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가마쿠라를 제압하고 엔가쿠지를 방문했을 때 그 공물로서 다양한 가라에와 가라모노가 진상되었다.⁶ 또한 1362년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1362년 牧谿의 樹頭繪(나무 위에 백로가 앉아 있는 그림, 2폭) 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엔가쿠지 측에서는 본존인 관음과 함께 진상하였다.⁷ 아시카가 요시아키라가 특정 그림을 지목하여 소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과 사찰 측이 본존을 곁들여 세 폭에 맞게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은 가라모노의 확산뿐 아니라 그 배치 방법에 있어서 선종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당시 엔가쿠지의(円覚寺領) 오와리쿠니 내 영토(尾張国富田庄)를 둘러싸고 분쟁과 相論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찰 측에서는 그 조정과 해결을 바라는 예물로서 당시 오와리쿠니 슈고(守護)인 도키 요리야스(土岐頼康, 1318~1388)와 그의 아들, 도키 나오우지(土岐直氏) 등 유력 무가에게 화조화, 산수화 등의 가라모노를 보냈다.⁸ 당시 가라모노는 선사로서는 중요한 증답품이자, 상류층 무가에게는 몹시 탐나는 귀한 물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가라모노가 당시 교토 상류층 주택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⁵ 〈仏日庵公物目録〉은 현재 엔가쿠지에 소장되어 있다. 오서를 통해 元応 2년(1320) 본 목록이 작성되었고, 貞治 2년(1363) 재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仏日庵公物目録〉에 기록된 가라모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佐藤博信, 「貞治二年付円覚寺仏日庵公物目録について: 唐物をめぐる人々の諸相研究余瀝」, 『鎌倉遺文研究』27(2011), pp.100-107.

⁶ 그 진상품에는 四聖繪(魚藍觀音, 馬郎婦, 柳氏女, 靈照女), 寒山拾得, 松猿繪, 犀皮円盆 一對, 堆朱 一對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전시도록에 실린 〈仏日庵公物目録〉 번각본을 참조하였다. 『宋元仏画』(横浜: 神奈川県立歴史博物館, 2007), pp.154-156.

⁷ 위의 책(2007), p.155.

⁸ 이외 더 자세한 상론 및 그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原田正俊, 「室町殿の室礼: 唐物と禪宗」, 『日本仏教総合研究』9(2010), pp.13-31; 佐藤博信, 앞의 글(2011), pp.102-105; 高橋範子, 「〈仏日庵公物目録〉によめること: 宋風の禪文化 鎌倉に到来」, 『宋元仏画』(横浜: 神奈川県立歴史博物館, 2007), pp.128-134; 古川元也, 「唐物の請來と価値の創出」, 『宋元仏画』(横浜: 神奈川県立歴史博物館, 2007), pp.135-145.

『明月記』나 『無名抄』, 『沙石集』 등의 문헌을 통해 13세기 초 가마쿠라 시대부터 상류 주택 내 가이쇼라는 공간이 확인된다.⁹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라모노가 장식된 가이쇼의 모습은 14세기부터 나타난다. 난보쿠초(南北朝) 시대(1336~1392) 대표적인 軍記物인 『太平記』에는 1361년 12월 8일 저녁 남조의 관군이 입경했을 때 사사키 도우요(佐々木道誉, 1306~1373)가 그의 주택을 관군에게 비워주기 전 가이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6칸 크기의 가이쇼에는 본존과 脇繪가 걸려 있고 화병과 향로 등이 장식되었다. 서원에는 왕희지의 초서와 韓愈의 문집을 놓았다.¹⁰ 1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따르는 유력 무가였던 사사키 도우요는 예능과 문화적 교양을 겸비한 인물로 다소 사치스럽고 화려한 취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당시 유력 무가들 사이에서 중국 문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주택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일면을 제시한다.¹¹

이외에도 가이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14세기 상류 주택에서 가라모노의 사용을 보여주는 문헌 또한 다수 존재한다. 하나조노 천황(花園天皇, 1297~1348, 재위 1308~1318)의 일기인 『花園天皇宸記』에 따르면 1320년 전 関白 니조 미치히라(二条道平, 1288~1335)의 교토 주택에 고후시미(後伏見), 하나조노(花園) 두 上皇이 방문했다. 이즈미야(泉屋)라는 접객의 공간에는 중국 회화와 꽃병, 향로, 石鉢이 진열되었고, 이 물건들은 모두 천황에게 진상되었다.¹² 또한, 공가 귀족 도인 긴카타(洞院公賢, 1291~1361)의 일기 『園太暦』 1359년 5월 9일조에 따르면 무가에서 긴카타에게 가라에와 가라모노 각 한 쌍을 진상하였다. 진상품은 세 폭의 중국 회화(본존은 관음, 脇繪는 산수)와 향로, 꽃병, 촛대로 구성되었다. 긴

⁹ 『明月記』, 建仁 3年 12月 10日.

¹⁰ “爰二佐渡判官入道々誉都ヲ落ケル時、我宿所へハ定テサモトル大将ヲ入替 ンズラントテ、尋常ニ取シタ、メテ、六間ノ会所ニハ大文ノ疊ヲ敷双ベ、本尊.脇繪.花瓶.香爐.鑽子.盆 ニ至ルマデ、一様ニ皆置調ヘテ、書院ニハ羲之ガ草書ノ傷.韓愈ガ文集、眠藏ニハ、沈ノ枕ニ鈍子ノ宿直物ヲ取 副テ置ク、十二間ノ遠侍ニハ、鳥・兎・雉・白鳥、三竿ニ懸双ベ、三石許ナル大筒ニ酒ヲ湛ヘ、遁世者 二人 留置テ、誰ニテモ此宿所へ来ラン人ニ一献ヲ進メト、巨細ヲ申置ニケリ” 『太平記』 卷37, 「新將軍都落」.

¹¹ 『太平記』는 14세기 연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인 동시에, 문헌의 아시카가 편향적인 태도로 인해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 평가 및 묘사에 있어 그 사료적 가치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많다. 문헌의 특성상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가라모노 취미에 대한 비난의 어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를 따르는 유력 무가들의 사치스러운 취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太平記』의 비판적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Thomas Donald Conlan, *From Sovereign to Symbol: An Age of Ritual Determinism in Four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9-13.

¹² 『花園天皇宸記』元応 2年 7月 29日. 川上眞, 앞의 글(1990), p.163 참조.

카타는 이 기물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답신을 보낸다.¹³

『園太曆』에는 무가 중 누가 그에게 진상한 것인지, 선물받은 기물들을 긴카타의 주택 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두 문헌을 통해 당시 상류층 사이에서 가라에, 가라모노의 확산과 이를 진귀한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살펴본 사사키 도우요와 니조 미치히라, 도인 긴카타의 예 모두에서 세 폭 한 쌍의 회화 및 화병과 향로 등 기물들의 유사한 조합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14세기 난보쿠초 시대에는 이미 귀족과 무사 등 상류계층 사이에 선호되는 혹은 주로 사용되는 기물들의 조합이나 유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회화와 기물들을 배치하여 저택 내 접객의 공간을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고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2. 아시카가 쇼군 저택의 가이쇼¹⁵

위에서 살펴본 1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2대 쇼군 요시아키라의 예를 통해 막부 초기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가라모노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종 사원뿐 아니라 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대량으로 가라모노를 수집하여 본격적으로 쇼군 소장품(御物)을 형성하기 시작 것은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 재위 1368~1394)이다. 같은 시기 접객과 회합의 장소인 가이쇼가 독립된 건물로 쇼군 저택 내에 등장한다. 『後愚昧記』, 『迎陽記』 등 당시 여러 문헌을 통해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무로마치 저택에서 한 개의 독립된 가이쇼 건물이 확인되며, 이후 가이쇼는 무로마치 막부 쇼군 저택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다.¹⁶

요시미쓰를 비롯한 당시 쇼군들의 저택 내 가라모노가 장식된 가이쇼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러나 1397년 조영된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

택과 이후 요시모치, 요시노리의 가라모노 소장품 및 이들의 저택 내에서의 화려한 배치에 대한 찬탄의 말들이 당시의 귀족이나 승려의 일기를 통해 확인되어 참고된다.

우선 1408년 3월 고코마쓰 천황(後小松天皇, 1377~1433, 재위 1382~1392, 1392~1412)이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택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인 『北山殿行幸記』를 통해 당시 천황을 맞이하는 가이쇼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저택 내에서는 舞樂, 鞠, 船遊, 和歌會, 漢詩會, 連歌會 등 다양한 문예 행사와 연회 및 의례가 개최되었다. 3월 10일에는 가이쇼 내 15칸(間)의 공간에서는 도아미(道阿弥, ?~1413)의 사루가쿠가 공연되었다. 이후 동서 좌석에 장식된 가라모노와 검, 금, 은 등이 천황에게 진상되었다. 세 폭 혹은 네 폭 한 쌍으로 이루어진 月湖, 牧谿의 그림과 盆, 香炉, 花瓶, 卓, 硯, 筆架 등의 가라모노가 포함되어 있다.¹⁸ 요시미쓰가 소장한 다양한 가라모노의 화려하고 정교한 배치 및 장식은 문헌의 저자인 関白 이치조 쓰네즈구(一条経嗣, 1358~1418)를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공가들을 압도했을 것이다.

이후, 4대 쇼군 요시모치(足利義持, 1386~1428, 재위 1394~1423)의 산조보몬 저택(三条坊門殿) 내 가이쇼 및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6대 쇼군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내 가이쇼에 대해서는 다이고지 승려 만사이(滿濟, 1378~1435)의 일기 『滿濟准后日記』와 고스코인(伏見宮貞成親王, 後崇光院, 1372~1456)의 일기 『看聞日記』 등을 통해 감탄의 말이 확인된다.¹⁹ 예를 들어 만사이는 1431년 가이쇼를 방문했을 때 그 내부 공간을 배치하여 장엄한 기물들을 보니, 그 감상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또한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내 북향 가이쇼(北向會所, 泉殿)가 완성되었을 때는 기타야마 저택 이래 그가 본 가이쇼 중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이라며 그 찬탄의 말을 전하고 있다.²⁰ 1431년 2월 7일 산조보몬 저택을 방문한 고스코인 역시 가이쇼의 장식을 보고 극락 세계의 장

¹³ 『園太曆』, 延文 4年 5月 9日.

¹⁴ 이러한 특정 조합의 장식은 선종의 유행과 더불어 가라모노가 점차 상류층으로 확산되는 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존을 곁고 그 앞에 삼구족 등의 기물을 배치한다는 면에서 불교적 맥락의 장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 맥락에서 점차 장식적인 측면으로 변모되어 확산되는 과정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¹⁵ 무로마치 시대 쇼군 저택과 가이쇼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작성해야 할 만큼 논의거리가 많지만, 본고에서는 다음 장의 좌석 장치의 정치성을 다루기 위한 건축적 배경으로서 문헌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주4 참조.

¹⁶ “泉以下御会所觀覽” 『迎陽記』, 応永 8年 2月 29日. 건축역사학자들은 문헌사료를 근거로 요시미쓰의 무로마치 저택 내 처음으로 독립된 가이쇼가 등장한 것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川上貢, 앞의 책(2002), pp.210-211.

¹⁷ 1408년 3월 8일부터 20일간 이루어진 行幸에 대한 기록인 『北山殿行幸記』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関白 이치조 쓰네즈구(一条経嗣, 1358~1418)가 기록한 가나체 기록이며 또 하나는 한 문체 문헌이다. 1408년 行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小川剛生, 『足利義滿: 公武に君臨した室町將軍』(東京: 中央公論新社, 2012).

¹⁸ 두 본의 『北山殿行幸記』에는 진상품의 양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北山殿行幸記』, 『群書類從』2(東京: 經濟雜誌社), p.546. 다른 한본에 기록된 것이 더 많다.

¹⁹ 『看聞日記』는 스코 천황(崇光天皇, 1334~1398)의 손자이자 고타나조노 천황의 아버지인 후시미노미야 사다후사의 일기이다. 총 5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16년부터 1448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일기 모두에서 아시카가 쇼군 저택의 가이쇼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²⁰ “悉御座敷拜見驚目了 尽善尽美 言詞難覃 北山殿以來多御会所等一見 尠 超過先了” “新造御会所へ令成給 問々 莊嚴御置物等を一々 數覽眞實以短詞難演盡 以十二間今日御座敷トセラル”, 『滿濟准后日記』, 永享 2年 4月 28日, 『滿濟准后日記』3(京都: 六條活版製造所, 1920), p.60.

엄과 같다고 감탄하거나, 무로마치 저택 내의 가이쇼를 둘러보고 공간을 장엄하여 배치한 보물들이 눈을 놀라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²¹

이처럼 선례를 뛰어넘는 다양한 기물들로 호화롭게 장식된 쇼군의 저택 내 가이쇼는 당시 귀족이나 승려 등 쇼군을 방문한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방문객들은 내부를 가득 메운 기물들의 수와 종류가 많은 데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付書院, 押板, 違棚 등 기물이 배치된 건축물적 장치와의 조합이 보여주는 그 장식 방법에도 놀랐을 것이다. 일련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듯 가이쇼를 독립된 접객의 장소로 하는 가라모노를 이용해 그 내부를 장식하는 방법은 요시미쓰 만년부터 요시노리에 이르는 동안 점차 확립되고 완성되어 간다.

Ⅲ. 고타나조노 천황의 行倂과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이번 장에서는 1437년 고타나조노 천황의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行倂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쇼군 저택 내 가이쇼 장식 및 그 제반 양상을 살펴보겠다. 行倂이란 천황이 자신의 거처(內裏)에서 다른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헤이안 시대 이래 신사와 사찰 또는 선황이나 고위 귀족의 저택을 방문하는 전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천황보다 지위가 낮은 무가/쇼군 저택으로의 行倂은 무로마치 시기 처음 행해진 것이다. 무로마치 전 시대에 걸쳐 총 세 차례가 이루어졌다. 요시미쓰가 두 차례, 요시노리가 한 차례 천황을 초청하였다.²² (1381년 고턄유 천황(後円融天皇, 1359~1393, 재위 1371~1382)의 요시미쓰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行倂, 1408년 고토마쓰 천황의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택으로의 行倂, 1437년 고타나조노 천황의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行倂).²³

²¹ “凡会所 以下莊殿 置物宝物等驚目 山水殊勝非言語所覃 極樂世界莊嚴如此歟”, 『看聞日記』, 永享3年 2月 7日. 『看聞日記』(東京: 宮内庁書陵部, 2002), p.272.
²² 고대성은 국내 연구로는 유일하게 무로마치 시대 세 차례의 行倂을 중심으로 막부 정권 및 그 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대성, 「천황의 행행(行倂)과 무로마치도노(室町殿)의 위상」,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36(2012, 12), pp.165-196.
²³ 각각의 行倂에 대한 기록으로 다음이 알려져 있다. 1381년 관련 『さかゆく花』, 『室町亭行幸記』. 1408년 관련 『北山殿行幸記』. 1437년 관련 『室町殿行幸記』, 『永享九年十月二十一日行幸記』.

2
 〈室町殿行幸御飾記〉
 16세기 무로마치 시대
 17.0×768.0cm
 나고야 徳川美術館



1. 〈室町殿行倂御飾記〉의 이해

세 차례의 行倂 중 요시노리가 고타나조노 천황을 그의 무로마치 저택으로 초대 한 1437년의 行倂은 행사에 관한 문헌 사료 외에 〈室町殿行幸御飾記〉²⁴를 통해 당시 저택을 장식한 기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현재 도쿠가와 미술관에 소장된 〈室町殿行倂御飾記〉에는 ‘後花園院 永享九年十月二十六日左大臣家 行幸 御飾記 能阿記’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1437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에서 개최된 고타나조노 천황의 行倂 기간 동안 저택 내부의 장식 모습을 적은 기록임을 알 수 있다.²⁴

1437년 고타나조노 천황의 行倂에 대한 문헌 기록인 『永享九年十月二十一日行幸記』와 『室町殿行幸記』에 따르면, 주요 행사는 21일의 천황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행렬에서 시작하여 23일의 舞御覽 및 和歌御會, 25일의 蹴鞠會 및 三船詩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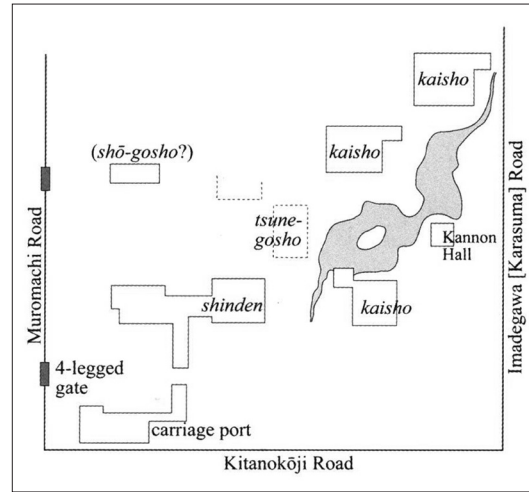
²⁴ 〈室町殿行倂御飾記〉에 대해서는 1976년 전시 〈東山御物〉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토 도요조는 이 전시 도록을 통해 雜華室이 요시미쓰가 아닌 요시노리의 소장인임을 주장했고(佐藤豊三, 앞의 글(1976) 참조), 전시 직후 구미권에도 소개되었다. Carla M. Zaine, “The Muromachi dono gyōkō okazari ki,” *Monumenta Nipponica*, vol.33, no.1(1978), pp.113-118. 제문을 통해 1437년 10월 26일 노아미(1397~1471)가 작성한 원본의 1530년 사본임을 알 수 있다. 노아미는 쇼군가의 수장품 목록인 〈御物御面目録〉을 작성했고, 수장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室町殿行倂御飾記〉 번각본 전문이 2014년 전시도록에 수록되어 있다. 『東山御物の美』(2014), pp.181-185

을 거쳐 26일에 환궁했음을 알 수 있다.²⁵ 행사의 중요성과 규모를 짐작케 하듯, 〈室町殿行倅御飾記〉에는 회화를 비롯하여 서예, 도자, 금속, 칠기, 문방용품 등 총 천여 점의 다양한 기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行倅이라는 행사뿐만 아니라 쇼군이 주축이 되어 만든 아시카가 저택에서 가라모노를 활용한 실내 장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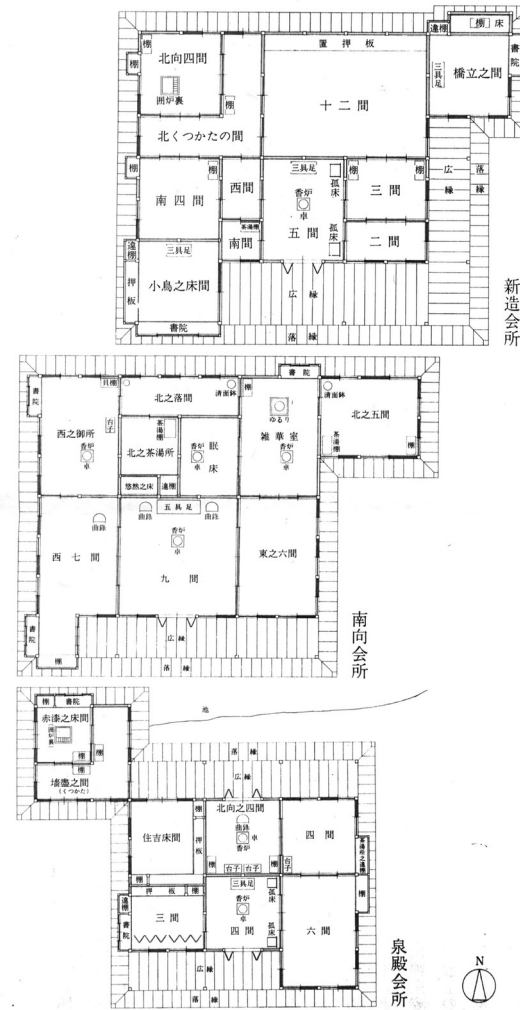
도3은 1437년경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추정 도면이다.²⁶ 6대 쇼군 요시노리의 저택은 역대 쇼군 저택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하나조노 천황이 방문했을 당시, 신

덴(寢殿), 常御所, 觀音殿, 그리고 세 개의 가이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건물군의 배치와 구성은 기본적으로 寢殿을 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건물군을 북쪽 혹은 북동쪽에 배열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쇼군 저택과 유사하다. 본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원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는 세 개의 독립된 가이쇼 건물이다. 두 개의 가이쇼를 연못의 북쪽에 남향으로 배치하고, 한 개의 가이쇼가 연못 남쪽에 북향으로 세워졌다. 가이쇼가 독립된 건물로 발전한 것은 요시미쓰 시기부터로 추정되지만, 이전 쇼군들이 하나의 가이쇼를 지닌 것과는 매우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室町殿行倅御飾記〉에 기록된 모든 기물과 장식들은 이 세 개의 가이쇼 건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室町殿行倅御飾記〉에 따르면 천여 점의 다양한 기물들이 세 개 가이쇼 건물 내 28개의 각기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었다²⁸. 문헌에는 에이코 7년(1435) 1월 완성된 新會所 11개, 에이코 5년(1433) 8월 완성된 北向會所(泉殿) 9개, 에이코



3 아시카가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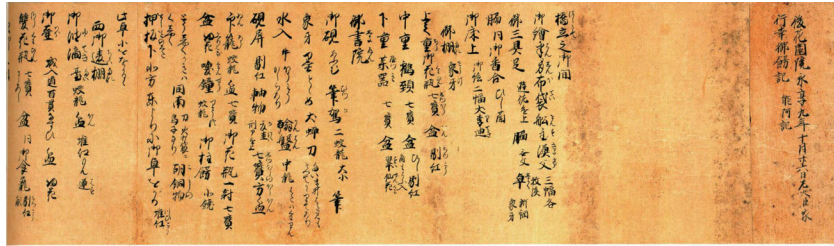
4 아시카가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내가이쇼 복원도 (나카무라 도시노리)

4년(1432)에 완성된 南向會所 8개 총 28개 공간에 대한 장식이 건물이 지어진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⁸ 문헌에 기록된 각각의 기물들은 각 건물 내 공간뿐 아니라²⁹ 공간 내부의 세부적인 위치, 작가의 이름, 화제, 매체 및 재료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전서품 목록만이 아닌 당시 건물의 실내 장식 전반을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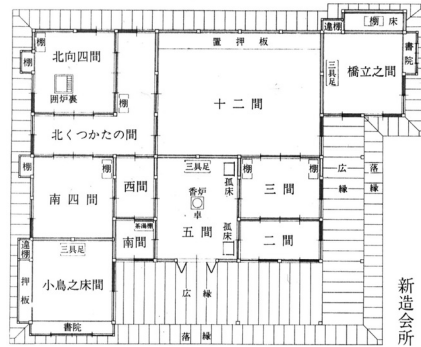
문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室町殿行倅御飾記〉는 처음 하시다테의 방(橋立之御間)으로 시작한다. 이는 新會所 중 한 영역에 해당된다³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牧谿(1210?~1269?) 그림 세 폭(半身布袋, 船主, 漁父)이 걸려 있고, 그 앞에 遊佐로부터 진상된 三具足³¹과 상아로 만든 탁자(卓)와 쉰이 놓여 있다. 도코노마(床) 위에는 위에는 李迪(약 1163~1197)의 〈犬図〉 2폭이 걸려 있다. 상아로 만들어진 선반(棚)은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상단에는 七寶花瓶과 칠기 받침(盆, 剔紅), 중단에는 七寶鶴頸(호병의 한 종류)와 盆(剔紅), 하단에는 七寶藥器와 盆이 놓여 있다. 書院에는 벼루(硯), 붓걸이(筆架, 二虯龍), 상아로 만든 붓, 水入, 水注, 硯屏(剔紅), 夏珪(1195~1224)의 軸

25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石原 此伊呂, 「室町殿行幸にみる足利義教の位置づけ」, 『青山史学』29(2011), pp.10-15.
 26 도3은 나카무라 도시노리가 작성한 추정 도면을 바탕으로 매튜 스태브로스가 작성한 도면이다. 中村利則, 『町家の茶室』(京都: 淡文社, 1981), pp.24-25; Matthew Gerald Stavros, *Kyoto: an Urban History of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4), p.123.
 27 서남쪽은 전통적인 공가 행사가 열리는 寢殿을 중심으로 한 의례용 건물군, 서북쪽은 常御所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 생활용 건물군, 그리고 동북쪽은 정원 및 연못이며 여기에 南向會所, 北向會所(泉殿), 新會所, 觀音殿, 持仏堂 등이 세워졌다. 아시카가 쇼군 저택 전반의 역사 및 건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川上眞, 앞의 책(2002), pp.196-278.

28 나카무라 도시노리와 미야가미 시게타카는 이 문헌을 근거로 세 개의 가이쇼 평면도를 복원했다. 두 연구자의 복원 도면에는 방의 크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中村利則, 앞의 책(1981), pp.25-30. 宮上茂隆, 앞의 글 (1984), pp.50-55, 78-81.
 29 건물 내부는 각 방마다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공간의 크기나 특징으로 그 장소를 구별하고 있다(예를 들어, 橋立之御間, 次御三間, 次南御四間, 赤漆之御床間 등).
 30 橋立之御間이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이 공간의 미담이문 그림으로 아마노 하시다테가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노 하시다테는 일본의 대표경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무로마치 시대 셋슈(雪舟, 1420~1506)의 아마노 하시다테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1 삼구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로마치 시대 중반에는 꽃병, 향로, 촛대의 조합이 삼구족의 전형으로 자리잡는 것으로 보인다.



5
〈室町殿行幸御飾記〉세부
하시다테의방(橋立之御間)
에 대한내용



物, 七寶 方盆, 印籠(虬龍), 七寶 盆, 七寶 花瓶, 盆, 喚鐘(虬龍) 등이 놓여 있다. 오 시이타(押板) 아래에는 胡銅物, 卓(剔紅)가 있다. 서쪽에는 또 다른 선반(違棚)이 있는데, 油滴, 臺(虬龍), 壺, 七寶 花瓶 한 쌍, 조칠한 식기(食籠)가 놓여 있는데 각각 받침(盆, 剔紅)과 쌍을 이루고 있다.³²

이처럼 〈室町殿行幸御飾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한 공간 내 선반이나 탁자 등 가구류를 기준으로 기물의 세부적 특징 및 위치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座敷飾り繪卷〉도6은 16세기에 만들어진 座敷 장식에 대한 채색 두루마리 그림으로,³³ 요시노리 저택의 가이쇼 공간 내부를 시각화하는 데 참고된다. 중앙에는 세 폭의 두루마리가 빈 화면인 채로 그려져 있으며, 그림 앞으로 각각 꽃병, 향로와 향합, 촛대의 삼구족, 그리고 꽃병 한 쌍이 놓여 있다. 세 폭의 그림 양 옆으로 삼단으로 이루어진 선반이 그려져 있고, 그 각 층을 꽃병, 분재, 약기나 합 등 다양한 기물들로 채우고 있다.³⁴ 〈君台觀左右帳記〉도7에 포함된 차도구들이 놓인 선반이나 각

32 이 문단의 하시다테의 방에 대한 장식은 다음의 번각본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해석했다. 三井記念美術館, 『東山御物の美』(東京: 三井記念美術館, 2014), p.181.
33 2002년 뉴욕에서 열린 카자리 전시도록 참조. Kazari: *Decoration and Display in Japan 15th-19th Centuries* (New York: Japan Society, 2002), pp.94-95.
34 이 두루마리는 각각의 기물 옆에 이름을 적어넣었고, 그림 옆 세부 주기를 통해 봄과 여름이라는

6
〈座敷飾り繪卷〉세부
16세기 무로마치 시대
종이에 수묵담채
28.4×575.0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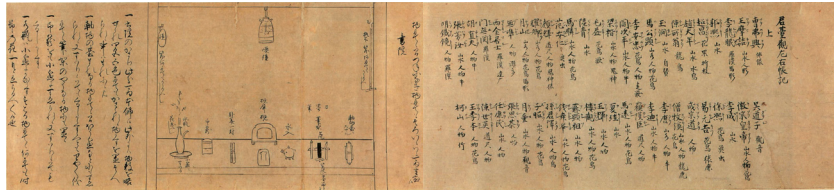


종 문방용구가 그려진 付書院의 모습도 위에서 살펴본 하시다테의 방에 놓여 있는 다양한 기물의 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물들이 모두 세 개의 가이쇼 내 28개 중 첫 번째 공간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면, 요시노리의 저택 전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기물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는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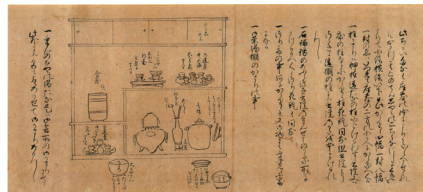
문헌에 수록된 천여 점에 달하는 기물들의 내용을 여기에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室町殿行幸御飾記〉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에서 제작되었을 기물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가라모노로 지칭되는 것들이다. 회화는 총 70여 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牧谿, 梁楷(약 1140~1210), 李迪 등 남송대 그림이 많다.³⁵ 화제 면에서도 선승이나 선종 사찰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수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색화, 관음 등 불교적인 도상 및 송대 휘종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배치 방식 또한 두 폭에서 다섯 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원에는 각종 문방용품과 서예 및 서책류가 놓여 있으며, 『夢中集』, 『月庵法語』 등 선종 관련 법전 또한 포함되어 있다.³⁶ 그 외 금속기, 칠기, 도자기로 제작된 수많은 향로, 화병, 향합, 약기 및 차도구들이 선반이나 탁자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칠보, 청동, 상아, 청자, 주칠 등 그 재료를 구체화하고 있으

계절 또한 표시하고 있다. 흰 화면으로 비어 있는 세 폭의 두루마리 그림과 각기 다른 종류의 화려한 꽃꽂이로 장식된 화병의 모습으로 미루어 무로마치 후기 이후 좌석 장식이 점차 규범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절에 따른 적절한 장식방법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35 회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板倉聖哲, 「美意識で見る東山御物」, 『聚美』(2014), pp.11-23; 板倉聖哲, 「東山御物の美: 中国絵画を中心に」, 『東山御物の美』(東京: 三井記念美術館, 2014), pp.134-139.
36 夢中集은 무소 소세키(夢窓 疎石, 1275~1351)와 아시카가 타다요시와의 문답 기록이다. 1342년 간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君台觀左右帳記> 세부
 16세기 무로마치 시대
 32.2×1189.3cm
 치바현 國立歷史民俗博物館



며, 이 중 일부에는 용이나 꽃 등 그 무늬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담고 있기도 하다. 쇼군이 천황을 맞이한다는 행사의 규모와 층위를 고려해 보면, 이에 걸맞은 기물들이 엄선되어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 의복이나 허리띠, 부채, 검, 금속 장신구 등의 기물들이 포함된 공간도 묘사되어 있어, 행사를 맞이하여 천황에게 진상하기 위한 물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임을 짐작케 한다. 가이쇼의 각 영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물들의 배치 및 장식에 대한 정보는 접객을 위한 공간인 가이쇼 내에서 천황과 쇼군의 대면 의례나 렌가 등의 시회 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공간 사용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물 중 일부는 당시 유력 무가로부터의 진상품이거나, 사찰로부터의 차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³⁷ 이 같은 개별적인 기물들의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당시 가라모노에 대한 애호뿐 아니라 이 기물들이 무로마치 막부 쇼군에게 집적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정치적 배경과 무로마치 저택

<室町殿行倅御飾記>에 보이는 다양한 기물들과 화려하게 장식된 가이쇼는 천황의 行倅 당시 아시카가 요시노리와 行倅의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行倅이라는 맥락 안에서 수많은 기물들의 전시배치 및 가이쇼 내부

³⁷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유력 무가인 遊佐로부터 진상된 삼구족, 利阿弥로부터 風炉胡銅, 土倉의 糶井에서 桂章 등 각 방면에서의 진상품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젠아미 소지품과 센뉴지(泉涌寺)에서의 차용품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간 장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요시노리의 쇼군으로서의 입지적 배경과 1437년 行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건립이 지니는 의미를 당시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시카가 요시노리는 1429년 쇼군(征夷大將軍)의 자리에 오르지만, 소위 제비뽑기 쇼군으로 불리는 정통성 면에서 많은 약점과 특이점을 지닌 인물이다. 3대 쇼군 요시미쓰의 셋째 아들이자 4대 쇼군 요시모치의 동생인 요시노리는 쇼군으로의 승계가 예정된 자가 아니었다. 5대 쇼군 요시카즈가 즉위 2년 만인 1425년 사망하고, 4대 쇼군 요시모치가 공식적인 직함 없이 다시 아들의 쇼군 직을 이어가던 중, 1428년 1월 요시모치 역시 위독해지자 막부는 후계자 승계 문제로 동요한다. 요시노리는 요시모치의 4명의 동생들 중 제비뽑기로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³⁸

이러한 불안정한 입지를 지닌 채 쇼군이 된 요시노리는 재위 기간 내내 여러 방면에서 권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당시 막부는 정치적으로 장군 襲職까지의 집정 문제, 가마쿠라 公方 모치우지(持氏)의 반 막부 행동, 남조의 황위옹립 문제 등 많은 난제가 산재해 있었다. 요시노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요시미쓰 시기의 시스템을 견지하는 태도를 취하며 막부 내에서 쇼군의 권위를 강화하고 막부 기구의 충실성을 도모했다. 요시미쓰 사후 막부의 정치 운영은 管領 주도하에 다이묘들의 합의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시노리는 이러한 방법이 비능률적이며 침체 상황에 빠졌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 쇄신에 착수했다.³⁹ 특히 아시카가 모치우치의 반 막부 행동이 본격화하고, 여러가지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이묘와 쇼군 사이의 중재자로서 管領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다이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 및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추구했다.

요시노리는 슈고(守護)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부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요시미쓰 사후 단절되었던 동아시아 대륙과의 교역을 재개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원 또한 확보하며 그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다. 에이쿄 6년(1434)의 견명선 파견은

³⁸ 당시 관례대로 요시노리는 1408년 불문에 귀의해 쇼렌인(靑蓮院) 문적 기엔(義圓)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1418년 천태종의 좌주가 되어 승려로 활동하던 중 요시카즈와 요시모치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1429년 제비뽑기로 쇼군의 자리에 오른다. 요시노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今谷明, 『籤引き將軍足利義教』(東京: 講談社, 2003).

³⁹ 1408년 요시미쓰가 급사하면서 이후 막부 정치 운영은 管領 주도 하에 모든 다이묘에 의한 합의제로 전환되었다. 관령 이하 모든 다이묘는 정치면에서는 쇼군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군사면에서는 막부 군의 주요 일원이며, 경제면에서는 막부 재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 이는 쇼군 권력의 전제화를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川岡勉, 『室町幕府と守護権力』(東京: 吉川弘文館, 2002).

명 선덕제의 책봉에 대한 회신을 보낸다는 것이 명목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33칸 규모의 건물을 짓는 조영 자금의 조달 등 무역을 통한 실질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⁴⁰

요시노리의 무로마치 저택 건립이 착공되어 완성된 것 역시, 그가 대내외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힘을 결집하는 노력을 통해 막부의 정치체제를 재정비하는 시기이다. 요시노리가 처음 쇼군이 되었을 때, 그는 요시모치의 산조보몬 저택(三条坊門殿)에 거주했다. 1431년 요시모치의 부인 히노 에이코(日野栄子, 1390~1431) 사후 건물 설립에 착수해, 아버지 요시미쓰의 무로마치 저택의 위치로 이주하게 된다.⁴¹ 1431년 신덴으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택과 정원의 정비 등에 공을 들여, 1437년 모든 건물들이 완성되었을 때 천황을 초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437년 요시노리가 고타나조노 천황을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무로마치 저택의 완성을 기념한 것이라기보다 요시노리의 강력한 통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자, 기존의 집권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운 요시노리의 실질적 지배의 시작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33년 다이고지의 승려 만사이가 요시노리의 북향 가이쇼(北向會所, 泉殿)가 완성되었을 때 남긴 찬탄의 말처럼,⁴² 새로 지어진 무로마치 저택이 시각적으로 매력시키는 면모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만사이가 그의 아버지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노리 역시 그의 아버지의 두 저택(무로마치 저택, 기타야마 저택)의 전례를 유념했을 것이다. 특히 요시미쓰가 20일 동안 천황을 초대했던 1408년의 기타야마 저택 行倂은 교토에서 천황과 전통적인 귀족 및 공자에게 그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⁴³ 요시노리가 그의 아버지의 화려하고 성공적인 선례를 모방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지배 정당성을 확인하고 또 공고히 하고자 했을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⁴⁰ 水野智之, 『名前と権力の中世史: 室町將軍の朝廷戦略』(東京: 吉川弘文館, 2014).

⁴¹ 요시노리 무로마치 저택 건축 과정과 그 부지의 위치 및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細川武敏, 『京都の寺社と室町幕府』(東京: 吉川弘文館, 2010).

⁴² 주20 참조.

⁴³ 1394년 쇼군의 자리에서 물러난 요시미쓰가 고코마즈 천황을 그의 은퇴 후 거처인 기타야마 저택으로 초대하는 1408년의 行倂에 대해서는 요시미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의가 많다. 20일에 달하는 성대한 행사라는 점, 요시미쓰를 閔白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요시미쓰 스스로 천황에 준하거나 그 이상(上皇)의 지위에 달하는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今谷明, 『室町の王権: 足利義満の王権篡奪計画』(東京: 中央公論社, 1990).

IV. 行倂을 통해 살펴본 15세기 교토 쇼군 저택 장식의 의미

무로마치 시대 천황의 쇼군 저택으로의 行倂을 둘러싸고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의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쇼군과 천황과의 권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역사학계의 주된 논의 대상이라면⁴⁴ 미술사 연구자들에게 더 큰 흥미를 끄는 것은 이러한 매우 정치적인 행사 안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가이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다 심도깊고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려면, 고타나조노 천황의 방문 기간 동안 가이쇼를 비롯한 각각의 건물과 세부 공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전 요시미쓰 시기 두 차례의 行倂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사료의 한계로 인해, 행사 동안의 건물 별 사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약이 크다. 하지만 현존하는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구체화해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주요 행사 즉, 21일의 천황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행렬에서 시작해 23일의 舞御覽 및 和歌御會, 25일의 蹴鞠會 및 각종 연회들은 의례용 건물인 신덴 혹은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가이쇼에서 어떤 행사 혹은 의례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더욱 빈약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렌가 시회, 노 공연 등의 문예 행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쇼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25일 밤 三船御會가 유일하다.⁴⁵ 연못에 봉황이 장식된 배(御座船)를 띄우고 배 위에서의 선악이 끝난 후 가이쇼의 동쪽 6칸 공간에서는 시가가 披搆되었다. 그때 천황은 가이쇼 좌석의 남측에 북면해 앉고 공경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앉았다. 이 배치는 보통의 렌가 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법이지만, 신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시회와는 달리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한 방에 모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이쇼의 특정

⁴⁴ 이시하라 히로와 하시모토 유의 최근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시하라 히로는 『永享九年十月二十一日行幸記』 분석을 통해 요시노리와 고타나조노 천황과의 관계와 行倂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石原 此伊呂, 앞의 글(2011), pp.1-19. 하시모토 유는 이 行倂을 당시 일본과 중국의 외교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쇼군과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橋本雄, 『皇帝へのあこがれ: 足利義満期の室町行幸にみる』, 『アジア遊学』122(2009. 5), pp.184-199.

⁴⁵ 의례나 행사에 대한 내용없이 가이쇼 내부 기물 및 그 배치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室町殿行倂御飾記〉의 ‘東之御六間’ 항목에 예외적으로 이 三船御會에 대해 “於此御座敷三船之詩御披搆. 二十五日夜時御繪卷申”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永享九年十月二十一日行幸記』의 “御舟樂果. 御會所東之端之御座席据. 釣殿准詩歌之披搆有” 부분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가이쇼 내부에서 이루어진 렌가 시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영역은 황제에게 선물로 진상될 중국 물건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다양한 회화 및 향로, 향합, 차도구 등의 가라모노뿐 아니라 부채, 병풍, 검, 금, 은 등이 배치되었다.⁴⁶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요 공식 의례와 행사, 즉 공가의 전통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신덴이 사용되었고, 가이쇼는 렌가 시회, 노 공연 등 주로 무가의 예능 및 여가에 관련된 활동에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行倭와 그 장식의 성격에 대해 신덴과 가이쇼, 일본과 중국, 전통 공가와 신흥 무가라는 양립적이고 대립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15세기의 가이쇼와 좌석 장식이라는 중세 교토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⁷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이중전략

1437년 쇼군 저택으로의 천황의 行倭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장 주된 목적은 쇼군 요시노리의 고타나조노 천황과의 친연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行倭을 통한 쇼군과 천황의 관계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行倭은 쇼군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통해 천황에게 그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논의가 많다.⁴⁸ 또한, 요시노리와 요시미쓰 모두 대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일본국왕'의 칭호를 받았다는 점과 아시카가 쇼군들의 수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휘종의 회화 및 황제가 수장한 회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요시노리가 고타나조노 천황에게 중국 '황제'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⁴⁹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난보쿠초 시대 이래 무로마치 시대에서 천황과 쇼군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공생 관계였다는 점이

⁴⁶ 御檜扇, 御屏風一雙(繪松つ/つじ), 本尊一幅(和尚), 御繪四幅(和尚/鶴), 御屏風一雙(唐繪), 御香合(剔紅), 釣物(金), 鴨香炉(金), 御硯(時繪), 御短冊箱(時繪), 御劍一腰(白), 五千貫.

⁴⁷ 일본 미술사학계에서는 이를 和/漢의 양자구조로 묘사하고 있다. 시마오 아라타는 복합적인 층위의 양자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島尾新, 앞의 글(2006), pp.130-138. 기존의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양자구조에 대해 재고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면에서 필자 역시 동의한다.

⁴⁸ 今谷明, 앞의 글(1990). Richard Stanley Baker는 기타야마 저택에서의 行倭을 중심으로 요시미쓰가 전통적인 귀족 문화의 대립항으로서 문화적 주도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Stanley-Baker, Richard, 「室町時代の座敷飾りと文化的主導権」, 『日本美術全集』11(東京: 講談社, 1990), pp.168-173.

⁴⁹ 하타 야스노리는 가이쇼에 전시된 휘종의 회화 및 夏珪와 梁楷의 그림에 주목해 요시노리가 그의 정치적 권력을 중국적 맥락에서 고타나조노 천황에게 과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畑靖紀, 「室町時代の宋院体畫に對する認識をめぐって」, 『美術史』156(2004), pp.145-148.

다. 당시 쇼군에게 있어 천황의 우위에 있음을 혹은 천황과 대등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았다. 특히 요시노리는 천황과의 관련성, 친연성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입지적인 약점을 가리고 정당성 및 지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이는 천황이 머무는 동안 요시노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덴에서 이루어진 공가의 전통적인 의례를 통해, 요시노리는 철저히 율령제 내에서의 그의 공식 직제를 따라 左大臣으로서 행동했다. 요시미쓰 이후 쇼군 또한 천황의 임명에 따른 직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行倭 당시 요시노리는 左大臣이었다. 行倭이 시작되는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행렬과 저택 내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의례 및 행사에서, 요시노리는 左大臣의 위치에 앉았고, 左大臣처럼 행동했다. 1408년 기타야마 저택에서의 行倭에서, 요시미쓰가 그의 아들 요시쓰구를 關白의 상위에 앉히는 등의 행동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요시노리는 공가의 전통과 의례의 전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⁵⁰

이처럼 천황과의 친연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요시노리는 참가자들에게 막부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의 권위와 문화적인 정당성을 교토 내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요시노리와 슈고 다이묘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로마치 막부는 슈고 다이묘와 쇼군의 교묘한 결합과 균형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라 할 수 있다. 천황과 공가의 문화적 전통이 강한 교토에 처음으로 자리잡은 막부로서 힘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만능이나 문화적인 정당성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했다. 천황의 쇼군 저택으로의 行倭은 당시 유력 공가와 다이묘 등 소위 주요한 지배세력이 쇼군의 저택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쇼군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장으로, 요시노리의 정치적, 문화적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장소였을 것이다.

더없이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세 개의 가이쇼 빌딩은 行倭 기간 동안 쇼군의 문화적 지배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가라모노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물들의 화려하고 정교한 배치 및 전시는 그들의 경제적인 재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선종, 차 문화, 중국 문화와의 연결고리로 인해 당시 유력 지배층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 개의 가이쇼 건물과 신덴에 전시된 가라모노의 일부를 행사 후 천황과 참가자들에게 진상함으로써, 아시카가 쇼군은 전통적인 문화적 지배권 및 황실/귀족 문화와의 경계를 모호히 함을 물론이고, 화려하고 값비싼 재화들이 정교하게 전시된 공간에서 다양한 연회나 시회 등 문예 행사를

⁵⁰ 石原 此伊呂, 앞의 글(2011).

통해 그들의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⁵¹

천황의 무로마치 막부 쇼군 저택으로의 行倂은 15세기 교토에 있어 가장 높은 층위의 중요한 행사였을 것이다. 천 점 이상의 중국 회화 및 기물들이 세 개의 가이쇼 건물에 배치되었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 의례와 연행이 6일 동안 무로마치 저택 곳곳에서 행해졌다. 아시카가 요시노리는 6일 동안의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천황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명분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요시미쓰 이래 구축된 새로운 문화적 지배 논리를 행사에 참가한 유력 다이묘와 귀족들에게 과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1437년 行倂에서 보이는 신덴-전통 공가와 가이쇼-신흥 무가의 양립성은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아시카가 요시노리가 당면한 약점을 극복하고, 15세기 교토를 중심으로 그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지배 정당성을 위해 통합적으로 사용한 교묘한 이중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저택 내부를 다양한 회화 및 기물들을 이용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장식하는 접객 공간의 좌석 장식 발달에 있어서 아시카가 쇼군들의 역할은 그들의 새롭고 독자적인 방법과 문화를 개척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불교적, 귀족적 전통을 통합시켜 그것을 점차 하나의 규범으로 체계화하고 새로운 문화로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처음으로 교토에 입성한 무가인 무로마치 막부는 3대 쇼군 요시미쓰의 체제 정비 사업과 더불어 선종 사찰의 적극적인 교류, 대륙과의 교역을 통한 가라모노 수집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한다. 중국 문물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문화는 일본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카가 쇼군들은 중국의 회화 및 기물들을 선종이나 렌가, 차회 등 다양한 문예 행사와 결부시켜 그 기물들을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장식하는 한편, 그들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통합시켰다. 또한 가이쇼라는 독립된 접객의 공간을 통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

⁵¹ 요시다 겐코의 수필인 『徒然草』에는 당시 가라모노 취미에 대해 약 이외에는 유용한 것이 전혀 없는 사치스러운 낭비품이라는 비판적인 어조의 언급이 실려있다. “唐の物は 葉の外はなくとも事欠くまじ。書どもは この国に多く広まりぬれば 書きも写してん。唐土舟のたやすからぬ道に 無用の物どものみ取り積みて 所狭く渡しもて来る いと愚かなり。… 遠き物を宝とせずとも また、得かたき貨を貴まずとも 文にも侍るとかや。” 앞 장에서 살펴본 『太平記』에 수록된 사사키 도요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14세기 초반 무가의 가라모노 취미에 대한 무시 혹은 비난조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 더욱 체계화시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좌석 장식이 성립되는 14, 15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여러 문헌 사료를 통해 그 발달 및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카가 요시노리 시기 고타나조노 천황의 무로마치 저택으로의 行倂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아시카가 쇼군들에 의해 체계화된 座敷 장식의 쇼군의 교토 내 지배 권력 및 정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5세기 무로마치 시대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닌 교토에서 좌석 장식이 지니는 정치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기물과 좌석 장식방법이 확산되는 시기, 즉 아시카가 요시마사 이후에 집중되어 그 장식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발생된 본래의 맥락이 도외시된 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과 이미지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최근 학계의 비판적인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무로마치 막부 쇼군과 관련된 좌석 장식의 발달은 물론 이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도보슈(同朋衆)의 역할과 오닌 전쟁(応仁の乱, 1467~1477) 이후 막부 쇠퇴기 권위와 연결되었던 수집품들이 재화화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선종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미화되는 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회화 및 기물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에 더해 이들의 장식 방법과 건축적 세팅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려는 노력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더 심도깊은 논의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keywords

室町時代 座敷 Muromachi period formal display, 足利義教 Ashikaga Yoshinori, 室町殿 Muromachi palace, 室町殿行倂御飾記 Muromachi dono gyokō okazariki, records on formal display of imperial visitation to Muromachi palace, 會所 kaisho, reception hall, 唐物 karamono, Chinese objects

투고일 2015년 8월 10일 | 심사일 2015년 8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7일

사료

- 『永享九年十月二十一日行幸記 *Eikyō kunen jūgatsu nijūichinichi gyōkō ki*』
『看聞日記 *Kanmon nikki*』
『滿濟准后日記 *Mansai jugō nikki*』
『室町殿行幸記 *Muromachi dono gyōkō ki*』

도록

- 『東山御物の美: 足利將軍家の至宝 *Higashiyama gomotsu no bi: Ashikaga shōgunke no shiho*』, 東京: 三井記念美術館 Tokyo: Mitsui Kinen Bijutsukan, 2014.
『室町將軍家の至宝を探る *Muromachi shōgunke no shihō o saguru*』, 名古屋: 徳川美術館 Nagoya: Tokugawa Bijutsukan, 2008.
『宋元仏画 *Sogen butsuga*』, 横浜: 神奈川県立歴史博物館 Yokohama: Kanagawa Kenritsu Rekishi Hakubutsukan, 2007.

논저

- 原田正俊 Harada, Masatoshi, 「室町殿の室礼: 唐物と禪宗 Muromachi dono no shitsurai: karamono to zenshū」, 『日本仏教総合研究 *Nihon bukkyō sōgō kenkyū*』9, 2010.
橋本雄 Hashimoto, Yū, 「皇帝へのあこがれ: 足利義教期の室町殿行幸にみる Kotei eno akogare: Ashikaga Yoshinoriki no muromachi dono gyōkō ni miru」, 『アジア遊学 *Ajia yūgaku*』122, 2009.
石原此伊呂 Ishihara, Hiro, 「室町殿行幸にみる足利義教の位置づけ Muromachi dono gyōkō ni miru Ashikaga Yoshinori no ichi duke」, 『青山史学 *Aoyama shigaku*』29, 2011.
川上貢 Kawakami, Mitsugu, 『日本中世住宅の研究 *Nihon chūsei jūtaku no kenkyū*』,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Tokyo: Chūō Kōron Bijutsu Shuppan, 2002.
島尾新 Shimaō, Arata, 「會所と唐物 Kaisho to Karamono」, 『シリーズ 都市・建築・歴史4. 中世の文化と場 *Shirizu toshi, kenchiku, rekishi 4. Chūsei no bunka to ba*』,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Tokyo: Tokyo Daigaku Shuppankai, 2006.

참고문헌

- Stanley-Baker, Richard., 「室町時代の座敷飾りと文化的主導権 Muromachi jidai no zashiki kazari to bunkateki shudōken」, 『日本美術全集 *Nihon bijutsu zenshū*』11, 東京: 講談社 Tokyo: Kōdansha, 1990.
Rousmaniere, Nicole Coolidge ed., *Kazari: Decoration and Display in Japan, 15th-19th Centuries*, New York: Japan Society, 2002.
Stavros, Matthew Gerald., *Kyoto: an Urban History of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4.
Verschuer, Charlotte Von., “Ashikaga Yoshimitsu’s Foreign Policy 1398 to 1408 A.D.: A Translation from “Zenrin Kokuhōki,” the Cambridge Manuscript.” *Monumenta Nipponica*, Vol.62, No.3, 2007, Autumn.

Politics of Ashikaga Shoguns' Formal Interior Display
(*zashiki kazari*) in the Muromachi Period

ABSTRACT

Lee, Jungeun

The Ashikaga shoguns were avid patrons of the arts, known especially for their collections of Chinese paintings, ceramics and bronzes (*karamono*), which they often displayed both for their own enjoyment and for the visits of eminent guests to their palaces. The Ashikaga also commissioned detailed illustrated manuscripts that inventoried the collections, described arrangements featured in their palaces, and gave instructions for their proper displays. Information and laudatory descriptions of the shogunal collections and their arrangements can be found in the diaries of courtiers and priests, suggesting the special significance of these formal display for the Ashikaga shoguns.

This paper examines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elaborate, formal, and regulated displays for the Ashikaga focusing on the special significance they held for the sixth Ashikaga shogun, Yoshinori (1394-1441; r. 1429-1441) during the visit of Emperor Go-Hanazono (1419-1471; r. 1428-1464).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everal primary written and visual sources from the Muromachi period with *Muromachi dono gyokō okazariki*,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played by Ashikaga shoguns' formal displays that integrated Buddhist and/or court traditions in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Ashikaga's legitimacy/ascendancy in the fifteenth-century Kyoto.